



미국 GDP: 소비둔화를 뛰어넘는 투자증가

- 비거주 고정투자 증가와 수입이 줄어들면서 GDP는 2.4% 성장
- 수요요인의 개인소비지출 기여도는 감소 중
- 예상보다 강한 고정투자로 연간 성장률 1.8%로 상향 조정

비거주 고정투자 증가와 수입 감소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견인

미국 실질 GDP는 2Q23에 2.4%(속보치 기준, 이하 별도 언급이 없다면 QoQ 연율) 성장했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개인소비지출(1.6%), 비거주 고정투자(7.7%), 수입(-7.8%), 정부지출(2.6%)이 성장에 기여하는 가운데 수출(-11.0%)과 거주고정투자(-4.2%)가 이를 상쇄했다. 2Q23 속보치(2.4%)는 컨센서스(1.8%)와 당사 추정치(0.9%)를 상회하였다. 이는 예상 밖의 수입의 감소와 우리의 예상(2.0%)보다 강한 비거주고정투자에 크게 기인한다.

개인소비에 대한 수요압력은 둔화가 진행 중

개인소비지출(1.6%)은 우리의 예상을 0.2pp 상회하였으나 1Q23(4.2%)보다는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지난 분기에는 공급요인에 의해 큰 폭으로 증가한 내구재 소비와 2023년도 사회보장혜택의 확대에 의한 수요요인에 의해 개인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둔화가 진행 중인 미국경제, 4/28 참조](#)]. 2Q23에는 개인소비지출에 대한 공급요인의 기여도(0.1%)가 대부분 사라진 가운데 수요요인의 기여도(1.5%)도 지난 분기(2.9%)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실질 가처분소득(2.5%)이 전 분기(8.5%)보다 둔화된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수요요인의 개인소비지출 기여도는 사회보장혜택이 크게 증가한 지난 분기를 제외하면 2Q22(3.2%)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그림 3].

소비는 약화되었으나 예상보다 강한 투자로 성장률 상향 조정

우리는 팬데믹 관련 초과 저축 소진과 학자금 대출 상황이 이루어지는 하반기에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lagging 효과까지 더해져 수요압력이 약해져 개인소비지출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그러나 고정투자와 관련해서 보면, 최근 신규주택착공 건수 증가세가 이어져 거주 고정투자가 3Q23에 다소 회복하며 설비투자 증가세도 3Q23에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점과 2Q23 속보치를 반영하여 2023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기존 1.4%에서 1.8%로 상향조정한다.

이남강 Ph.D

nglee@koreainvestm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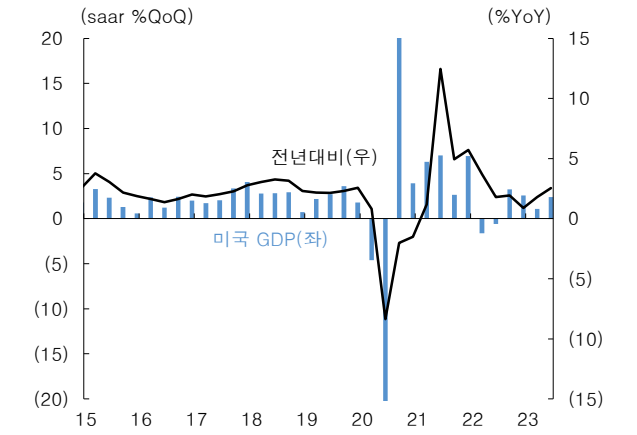
최제민

jmchoi@koreainvestment.com

홍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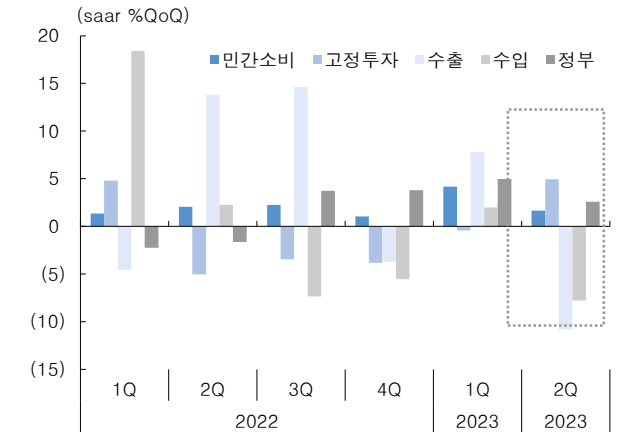
yl.h@koreainvestment.com

[그림 1] 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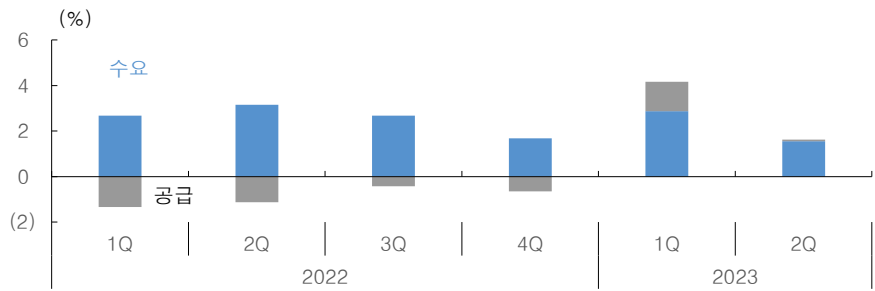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주요 항목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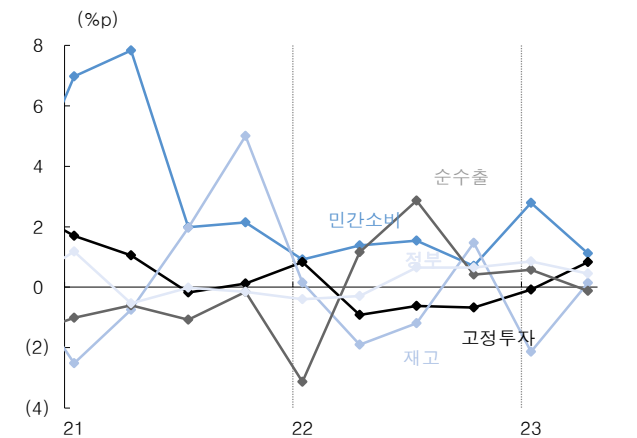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실질 개인소비지출 수요와 공급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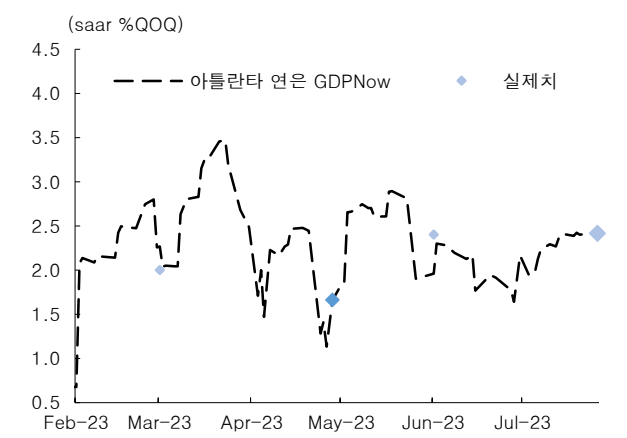
자료: BEA,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주요 항목별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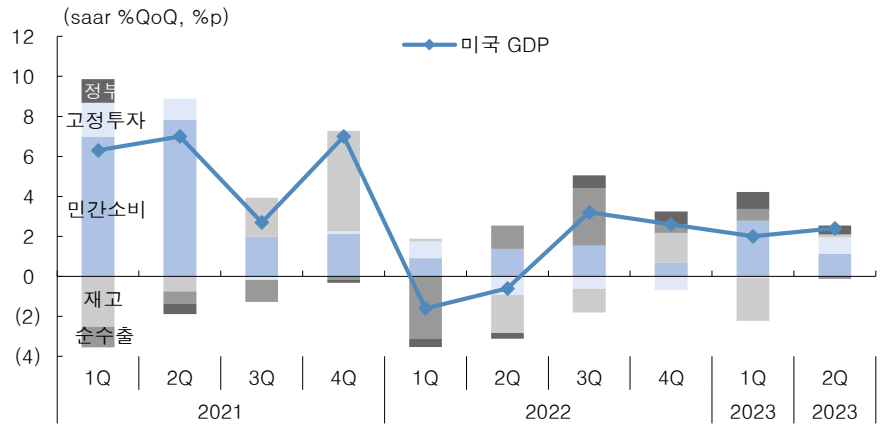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아틀란타 연은 1Q23 GDP 전망 변화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미국 GDP 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 분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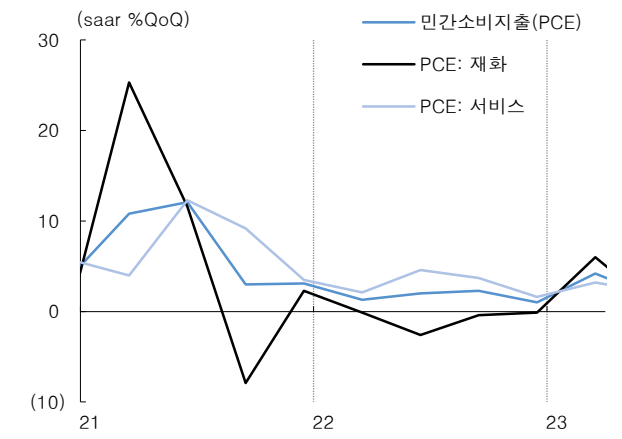
<표 1> 미국 GDP 항목별 성장률

구분	단위	2022 년				2023 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국내총생산	saar %QoQ	(1.6)	(0.6)	3.2	2.6	2.0	2.4
	%YoY	3.7	1.8	1.9	0.9	1.8	2.6
민간소비지출	saar %QoQ	1.3	2.0	2.3	1.0	4.2	1.6
총민간투자	saar %QoQ	5.4	(14.1)	(9.6)	4.5	(11.9)	5.7
고정투자	saar %QoQ	4.8	(5.0)	(3.5)	(3.8)	(0.4)	4.9
수출	saar %QoQ	(4.6)	13.8	14.6	(3.7)	7.8	(10.8)
수입	saar %QoQ	18.4	2.2	(7.3)	(5.5)	2.0	(7.8)
정부부문	saar %QoQ	(2.3)	(1.6)	3.7	3.8	5.0	2.6
정부소비	saar %QoQ	(1.3)	(0.7)	2.8	3.2	4.9	1.2
정부투자	saar %QoQ	(6.0)	(5.5)	7.8	6.3	5.2	8.5

자료: BEA,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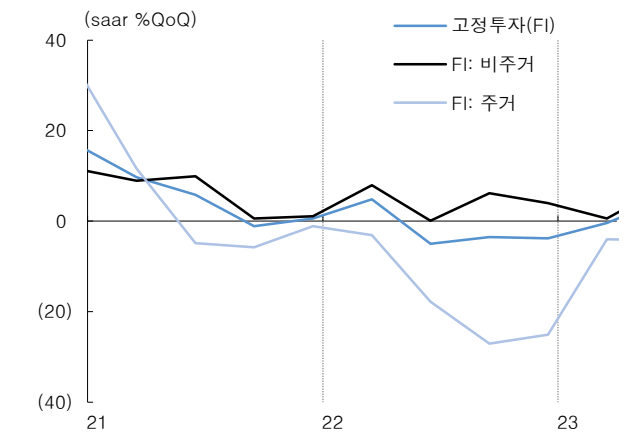
Appendix. 지출항목별 증감률

[그림 7] 민간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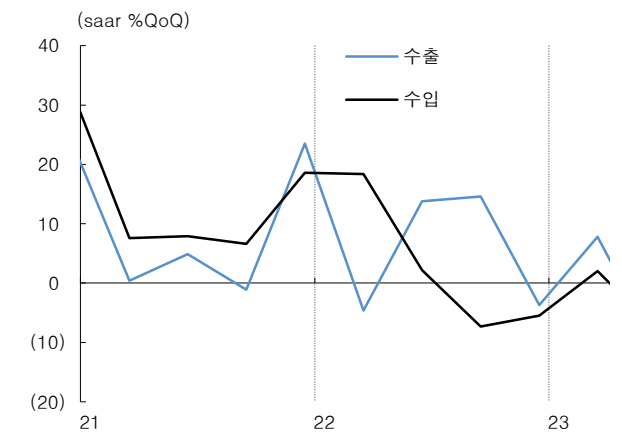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8] 고정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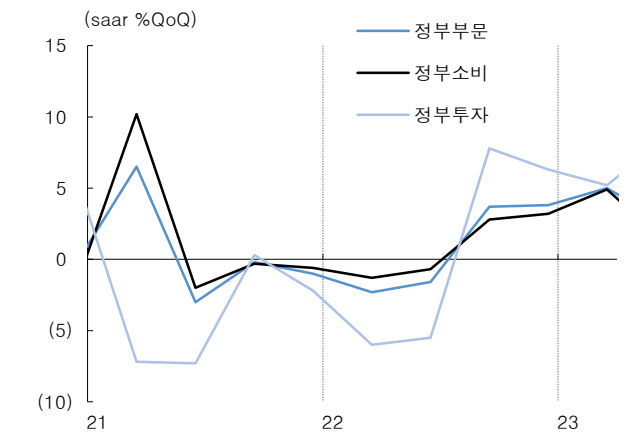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수출입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정부부문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